

결혼 시즌 예식장들 암체 상흔

2만원대 식권 반납하면 5천원짜리 답례품... 혼주들 울며 겨자먹기

광주지역 일부 예식장이 식사를 하지 않고 가는 하객들에게 식권을 받고 대신 값싼 답례품을 주고 있어 지나친 상흔(商魂)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2만원대가 넘는 식권 대신 건네지는 답례품의 실제 가격과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 혼주들과 하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결혼시즌인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B예식장. 결혼식이 진행되는 도중 축의금을 낸 하객들이 식권을 든 채 어디론가 사라진 뒤 종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왔다. 종이 가방 안에 든 내용물은 톨 케이크,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는 하객들을 위해 혼주측이 준비한 답례품이었다. 예

식장 측은 안내데스크에 '식사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선물세트를 드립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아 하객들이 식권을 가지고 오게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객들이 식권을 반납하고 답례품을 받아가게 되면 그 식권은 식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혼주들은 2만~3만원 상당의 식권값과 동일하게 값을 치러야한다. 이 예식장의 식권 한 장은 2만2천원씩. 그러나 식권 대신 전달되는 답례품의 가격은 4분의 1도 안되는 5천원 이하로 예식장 측은 식권 한장당 1만원이 훨씬 넘는 별도의 이득을 얻게 된다. 당연히 혼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A(33)씨

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예의상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지만 유명 제과회사의 빵도 아닌데다 식권과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예식장 측과 계약하면서 포함됐기 때문에 달리 방도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같은 시간 광주시 남구 S예식장. 식권 대신 케이크를 나눠주는 방식이 똑같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답례품으로 나눠줄 케이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하객들로부터 식권을 받은 뒤 일주일 후 예식장을 직접 방문해 답례품을 받아가라는 황당한 얘기를 해왔다. 식권만 내놓고 답례품은 받지 못하게

상황을 만든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 예식장을 찾은 하객 김모(44·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일주일 뒤에 몇천원짜리 케이크 하나 찾기 위해 예식장까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식장의 장삿속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예식장 관계자는 "예식장 마진은 식사 대금에서 주로 남기 때문에 경영상 어쩔수 없다"며 "답례품은 혼주들과 계약할 때 미리 상의해 강제성이 없고 답례품 또한 예식 전달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할 염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631) 김장두



교실 상당수 세균·먼지 '득시글'

광주 13.5%가 CO2 기준치 초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교실이 세균이나 먼지에 의해 상당수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실 환경오염 실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조사 대상 학교 135곳 중 13.5%인 21곳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307개 학교 중 5.5%인 18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면 대구와 대전, 충북, 경북 등은 측정 대상인 12개 항목 모두 기준

치를 초과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이산화질소 등 12개였다.

광주의 경우 미세먼지는 143곳 중 13곳이 기준치를 초과해 8.3%의 초과율을 기록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15%(17곳 중 3곳), 폼알데하이드 0.6%(155곳 중 1곳) 등이었다. 나머지 8개 항목은 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었다.

전남의 기준치 초과율은 항목별로 이산화탄소 3.7%(313곳 중 12곳), 폼알데하이드 2.5%(317곳 중 8곳), 총부유세균 3.4%(314곳 중 11곳) 등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



국내 첫 말 마라톤 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말 마라톤대회'가 17일부터 3일간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렸다. 20km 구간을 달리는 장거리 경주에 참가한 말과 기수들이 대광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승마용 말 15마리와 선수·동호인 등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승마 아카데미와 승마체협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나라 최초의 '말 마라톤대회'가 17일부터 3일간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렸다. 20km 구간을 달리는 장거리 경주에 참가한 말과 기수들이 대광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승마용 말 15마리와 선수·동호인 등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승마 아카데미와 승마체협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라도 × × 다 잘라버려야 해” 황규욱 서울관악서장 발언 파문

완도군과 유착 의혹 건설업체 수사

검찰이 지자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완도지역 모 건설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19일 완도군 소재 H 건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완도군과의 유착 관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H건설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 등을 파견해 최근 완도에 문을 연 '완도타워' 공사 입찰 서류 등 수년간 공사 입찰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회사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자금 흐름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H건설이 최근 완도군 주요 건설공사를 상당수 수주하고 있는데다, 입찰 과정에서 H건설이 유리한 제한 입찰 등이 많았다고 보고 압수한 서류를 면밀히 분석, 자차단

체와의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차 버스 미끄러져 관광객 등 2명 사상

18일 오후 2시50분께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미항사 주차장에서 20인승 미니 버스(운전자 박모·49)가 미끄러지면서 관광객 이모(76·해남군 송지면)씨와 박모(여·64·해남읍)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이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박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차브레이크가 허술하게 채워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황규욱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호남 출신에 대한 인삿말 불이익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황 서장의 호남 출신 확대와 비하 발언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고 서울경찰청은 황 서장이 문제된 행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황규욱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술자리에서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언론 등에서 제기해 관할 경찰청인 서울경찰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관악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황 서장이 지난 8월 중순 '보안지 도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및 경찰 부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선 파장을 지목하며 '전라도 × × 다 잘라버려야 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당시 자리에 있던 민간 위원들은 이

에 대해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현직 경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무궁화 클럽' 게시판에는 황 서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항의성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조사 중이라 황 서장의 발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가 들어온 만큼 답변 마련차원에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황 서장은 2005년 경찰대 학생과 재직 당시 현충일에 고풍플

동료 선원이 밀어 실종

목포해양경찰은 18일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 선원을 바다로 밀어 실종시킨 이모(39)씨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께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함께 배에서 일하던 박모(44)씨를 바다로 밀쳐 실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침식사 당번인 박씨와 '물을 끓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방역회사 직원이 다이아몬드 슬쩍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바퀴벌레 소독을 하던 방역회사 일용직 노동자가 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다가 집주인에게 발각.

○광주남부경찰은 19일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H방역회사 일용직 노동자 양모(여·4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에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에서 바퀴벌레 소독을 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집주인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박씨의 반지를 소독가방에 넣고 나오다 집주인에게 발각됐는데, 경찰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자 순간 마음이 동했다"며 선처를 호소. /광필기자 kps@kwangju.co.kr

무안-함주(황산, 구화산) 직항 전세기

기동식 배지식 시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회 명산 황산

황산-함주 항공기 3시간 소요(직항) 1박 2일 / 함주-무안 항공기 3시간 소요(직항) 1박 2일

3박 4일 ₩ 629,000~ / 4박 5일 ₩ 699,000~

● 3박 4일

● 4박 5일

황산(정기제, 일회제) 전착식매진!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대별 차대별 만족도를 우선

● 광주 MBC 문화방송

● 황산입니다 www.kpsk.com

다들 내가만 감동시켜 "광주MBC 문화방송"을 시청하시면

광주 MBC 문화방송 광주/전남 직 유령여행사 ☎ 문의 062-226-6070